

		보도자료	
		배포일시	2018. 9. 5.(수) / 총 5매(본문2)
담당 부서	KIND 전략기획본부	담당자	• 실장 고준석, 팀장 박종원 • ☎ (02) 6746-7352
보도일시		2018년 9월 5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KIND-대한건설협회 양해각서 (MOU) 체결

KIND(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), 우리 건설사의 해외 PPP 사업 진출을 위해 대건협과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

- ☐ KIND는 대한건설협회와 우리 건설사의 해외투자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(MOU)를 9.5(수)체결했다.

* KIND (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&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,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)

- 최근 해외건설시장이 투자개발 사업방식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양 기관은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여,
- 허경구 KIND 사장과 유주현 대건협 회장 및 양 기관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대건협(건설회관)에서 체결하였다.

- ☐ 양 기관은 향후 국가별 PPP시장 진출 관련 정보 수집 및 공유와 PPP관련 프로젝트 수주 공동지원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.

주요 협약내용

- ❖ 국가별 PPP시장 진출 관련 정보 수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사항
- ❖ 유망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사항
 - 협약 당사자가 발굴한 프로젝트 정보공유
 - 해외정부 및 발주처 교섭 등 프로젝트 수주 공동지원
- ❖ 기타 협약 당사자의 PPP관련 공동 사업 추진 시 상호 협력

- 이날 허경구 KIND 사장은 “대건협과 함께 회원사의 해외 PPP사업 진출 애로사항 및 지원요구 사항 등 현장의 니즈를 파악하여
- 분야별 전문성과 노하우, 정보력을 활용하여 사업 구조 설계, 외국 정부 및 발주처와의 협상 등을 지원하고
- 금융 대출 주선, 글로벌 MDB 투자 연계, 필요 시 지원공사의 직접 투자 등 우리 건설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Team Korea의 지원·리딩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”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.

첨 부 : 1. 관련 사진 1부

2. KIND 개요

참고 1

mou 체결식 사진



허경구 KIND 사장(좌), 유주현 대건협 협회장(우)



MOU 참석 “파이팅” 외치는 임원진

1. 추진배경 및 경위

◆ 투자개발형(PPP) 발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급방식에 익숙한 우리기업은 정보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PPP 진출에 소극적

⇒ PPP 사업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공사를 설립하여 우리 기업의 PPP 역량 보완·강화

□ (추진 배경) 신흥국을 중심으로 민·관 협동(PPP) 인프라 사업이 확대되는 등 해외 건설시장이 급격히 변화

* 신흥국 투자개발사업 시장 규모(WB): '05년 403억불 → '15년 1,199억불(약 3배)

○ 우리 기업은 PPP 진출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·역량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적 저조*

* 세계 PPP 시장에서 우리기업(14억불)이 차지하는 비중: 1.15%('15년)

○ 반면 중국, 일본 등 경쟁국은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수주 지원 정책('국가대항전')을 바탕으로 PPP시장에 활발히 진출중

* 특히, 프랑스(Egis), 카타르(Nebras Power), 일본(JOIN) 등 일부 국가는 PPP 사업 지원기구를 설립하여 발 빠르게 대응 중

⇒ 우리기업의 해외 PPP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 정책을 연계·확대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기구 설립

□ (추진 경위)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원기구 설립 의결('17.1.4), 세부 설립 및 운영방안 논의('18.1월)

○ (법적 근거 마련) 「해외건설 촉진법」에 지원공사 설립 근거 마련

* 개정안 발의(전현희의원, '17.6월) → 상임위 및 본회의의결('17.9월) → 국무회의 및 공포('17.10월) → 시행령 개정안 차관·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('18.4.25)

2. 지원공사 주요 역할

- (주요 업무) G2G를 통한 프로젝트 발굴부터 사업 개발지원, 금융 지원에 이르는 PPP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·전문적으로 지원
 - (사업 발굴*) 고위급 수주지원 참여, 상대국 인프라 중장기계획 및 정책에 대한 기술 검토를 통해 사업 수요 선제적 발굴·제안
 -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·분석하여 수주에 활용
 - * G2G, 자체 발굴, 민간 제안사업 등을 토대로 대상사업 발굴(단기~중장기)
 - (개발 지원) 금융, 법률, 인프라 엔지니어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비·본타당성조사 비용 지원
 - 분야별 전문성과 노하우, 정보력을 활용하여 사업 구조 설계, 외국 정부 및 발주처와의 사업조건 협상 등도 지원
 - * KIND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사전 타당성조사 수행 후 국토부 위탁사업 (F/S 등)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개발 지원
 - (금융지원) 대출 주선, 정책성 펀드 또는 글로벌 국부펀드 투자 연계 등을 통해 민간의 재원 조달 부담 완화
 - 필요시 지원공사의 공신력을 활용, 민간보다 낮은 비용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사업성 보장을 위한 투자 실시
 - * KIND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 이내에서 차입·채권발행 가능

